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2. 4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열왕기상하 · 베드로후서 · 요한일삼서 · 유다서
구약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총회
상 조 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십자가의 영광, 믿음의 삶

● Contents

10 1과 복종

18 매일성경묵상 베드로후서 1장 ~ 요한일서 3장

26 2과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34 매일성경묵상 요한일서 4장 ~ 유다서 1장

열왕기상 13장

42 3과 수천 명을 먹인 일에 대한 세 사람의 시각

50 매일성경묵상 열왕기상 14장 ~ 열왕기상 19장

58 4과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66 매일성경묵상 열왕기상 20장 ~ 열왕기하 3장

74 5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82 매일성경묵상 열왕기하 4장

『중현의 만나』는

가정예배·구역예배·대학청년부 GBS를 돕기 위해 중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4 April 2012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종려주일 (가족연합예배)	2 베드로후서 1장 ←	3 베드로후서 2장	4 베드로후서 3장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
8 부활주일 (특별찬양예배)	9 요한일서 4장	10 요한일서 5장	11 요한이서 1장
15	16 열왕기상 14장	17 열왕기상 15장	18 열왕기상 16장
22 제2차 학습세례식	23 열왕기상 20장	24 열왕기상 21장	25 열왕기상 22장
29 장애민주일	30 열왕기하 4장		

May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5 요한일서 1장

6 요한일서 2장

7 요한일서 3장

성금요일
제3차 성찬식

12 요한삼서 1장

13 유다서 1장

14 열왕기상 13장

19 열왕기상 17장

20 열왕기상 18장

21 열왕기상 19장

26 열왕기하 1장

27 열왕기하 2장

28 열왕기하 3장

교회 주요일정

4월 1일

종려주일(가족연합예배)

4월 2일 ~ 6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월 6일

성금요일
제3차 성찬식

4월 8일

부활주일(특별찬양예배)

4월 22일

제2차 학습세례식

4월 29일

장애인주일

나의 주요일정

- 1 사순절기(2.22~4.7)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 2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3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 4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5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6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7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8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9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양로원 및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 10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영광, 믿음의 삶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 되어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영광이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시 121:8).

2012년 4월을 맞이하여 위임목사 김성관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BIBLE



종려나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쳤대요(요 12:12~13). 이 때문에 우리는 종려나무(히브리어 ‘타마르’, 영어 ‘Date Palm’)에 익숙하다. 목재가 귀했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나 간단한 가구를 만드는 데 종려나무를 이용했으나 현재는 그 열매만을 사용한다. 지금은 이스라엘보다 상대적으로 기후가 더운 요르단 계곡, 사해 주변, 아라바 계곡 등에서 종려나무를 많이 기르고 있다. 사해 가까이의 여러고는 종려의 성읍으로 불렸다(신 34:3 ; 대하 28:15).

종려나무는 키가 크고 곧으며, 또 여름을 지나면서 그 열매가 아주 탐스러워지는데, 아가서 7:7은 바로 이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신부의 키가 종려나무 같고 그 아름다운 가슴이 종려나무의 열매 송이와 같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종려나무는 우아함이나 축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대 여자들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다윗의 아들 암논에 의해 추행을 당한 압살롬의 누이의 이름이 바로 ‘종려’(다말=타마르)였다.

7 종북

[종조]

유대인들은 매년 가을의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초막을 치는데(모든 사람이 초막을 치는 것은 아니며, 또 자주 초막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그 초막의 지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한다. 종려나무는 암나무, 수나무가 있으며 암나무는 5~6년 생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50여 년 정도까지는 매년 30cm 정도 자라다가 그 이후는 성장이 둔화되는데, 키가 약 20m 정도 되는 종려나무는 수령이 약 100년 쯤이라고 한다.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 에 체크하세요	
1 주일	
2 월요일	☐ 베드로후서 1장
3 화요일	☐ 베드로후서 2장
4 수요일	☐ 베드로후서 3장
5 목요일	☐ 요한일서 1장
6 금요일	☐ 요한일서 2장
7 토요일	☐ 요한일서 3장



복 종

Submission

| 초점 |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자

| 찬송 |

찬송가 141장 호산나 호산나

충현찬양곡집 60장 종려나무

| 본문 | 누가복음 19:28~40

²⁸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²⁹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³⁰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³¹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³²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³³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³⁴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³⁵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³⁶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겹옷을 길에 퍼더라 ³⁷이미 감람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³⁸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³⁹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⁴⁰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는 동안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요 12:13

※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을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감람산 중턱에 있는 베다니에서 쉬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군중들의 환호와 찬사가 쏟아졌지만 그들 중 소수만이 참 신자였습니다(마 27:23). 참된 복종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표현하는 삶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은 진실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지만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신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요 10:31~33,39).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후, 정통파 유대인들은 더욱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시련,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아버지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셨습니다.

요 11:53 _____

눅 9:9 _____

※ 빌립보서 2:5~8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복종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제자들의 복종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대한 제자들의 복종은 진실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귀 새끼와 관련된 매우 이상한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 누가복음 19:29~35 말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마치 제자들이 이 마을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어떤 곳 또는 자신이 싫어하는 어떤 사람에게 보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는 마치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죄인들처럼 괴곤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귀 새끼에게 한 행동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롬 3:24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나귀의 복종

창조주와 왕을 향한 나귀의 복종은 진실했습니다. 나귀 새끼는 본래 매우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눅 19:35 _____

제자들은 나귀 새끼의 등 위에 겹옷을 걸쳤습니다. 그렇기에 이 나귀는 매우 불편했을 것이며,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집스러운 나귀 새끼 위에 앉으셨을 때 나귀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눅 19:40 _____

막 4:39 _____

※ 나귀의 복종을 통해서 느낀 점을 나누어 보십시오.

주님께 복종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인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복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교회의 성도와 지도자 등으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종하면,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특별한 집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십시오.

벧전 3:20 _____

눅 9:23~24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게 하소서.
- ②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소서.
- ③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신자

베드로후서 1장

찬송가 154장

목/상/노/트

베드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 가라고 권면합니다(벧후 3:18). 이를 위해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굳게 하라(3~11절)는 당부와 함께 이를 확증하는 진리의 말씀의 확실성(12~21절)을 강조하고, 2장에서는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계와 그들의 정죄에 대해서 설명하며, 3장에서는 주의 날에 대한 확실한 약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3절)을 받은 신자는 결과적으로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5~7절) 더해 가며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신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한 자입니다(요 15:5).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부를 수 없으며, 스스로를 택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는 것이고 얻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끊임없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신자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더욱 자라가길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벧후 1:3~4)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we need for life and godliness through our knowledge of him who called us by his own glory and goodness. Through these he has given us his very great and precious promises, so that through them you may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and escape the corruption in the world caused by evil desires. (2pet. 1:3~4)

• 교묘히 만든 이야기(16절) : ‘신화(myths)’란 의미로 하나님의 복음을 비방하는 거짓 이야기 복음에 관해 부정적 개념으로 만들어 낸 이야기를 의미한다.

기도제목

① 주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사순절기(2.22~4.7)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거짓 선생

3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신자에게 가장 위험하고 해로운 영적 적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그들은 살아 계신 주를 부인하고(1절), 호색(2절)과 탐심(3절), 더러운 정욕(10절)과 불의(13절), 음심(14절), 그리고 허탄한 자랑(18절) 등을 일삼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그의 사역과 구속에 대하여 부정하는 자들이며, 육체의 정욕을 일삼아 부정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성경은 분명한 형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7절).

믿음 생활의 가장 큰 함정은 그리스도 없이도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심으로 점철된다면 우리 또한 거짓 선생과 별반 차이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박애는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마 7:16)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없는 신앙의 열매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에 지나지 않으나, 주가 주신 복음의 은혜로 시작된 열매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영적인 결실을 맺습니다. 의의 도를 안다고 하나, 결국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21절) 거짓된 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모양만 신자 인정 하고 그 본질은 주님과과는 거리가 먼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를 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적 열심입니까?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 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벧후 2:17)

These men are springs without water and mists driven by a storm. Blackest darkness is reserved for them. (2pet. 2:17)

베드로후서 2장

찬송가 148장

묵/상/노/트

• **이단(1절)**: 어떤 단체나 조직의 권위로 규범화된 교리나 신앙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성경적으로는 말씀에서 벗어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며, 이 장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이 이에 해당한다.

기도제목

① 복음의 진리를 통해 불의와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주의 날

베드로후서 3장

찬송가 176장

묵/상/노/트

베드로는 자신의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주의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역사적으로 온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당시의 불순한 자들은 주의 날을 의심하며 '조롱하는 말'로 비웃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3~4절). 하늘은 여전히 하늘이고, 땅은 여전히 땅인데, 무슨 심판이, 무슨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인가? 이것이 주의 날(마지막 날)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조롱하는 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날을 언급하고 있으며,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8~13절). 성경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신자의 준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13~14절).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염세주의자가 결코 아닙니다. 주체할 수 없는 영광된 감정이 몸서리치게 그의 전 인격을 사로잡고, 신비로운 영적 은혜가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된 자가 바로 주의 날을 열망하는 신자입니다. 세상이 힘들어서, 살기 너무 고단해서 마지못해 고대하게 되는 그런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에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신자의 최종적 완성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에 모든 것은 풀어지고(11절) 녹아질 것이며(12절) 주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의 날'은 약속되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고후 5:17).

• 새 하늘과 새 땅(13절) : 이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불로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변화된 것이다. 이는 마치 우리 옛 사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 새 사람과도 같다(골 3:9~10 : 고후 3:18).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벧후 3:14)

So then, dear friends, since you are looking forward to this, make every effort to be found spotless, blameless and at peace with him. (2pet. 3:14)

기도제목

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노트

생명의 말씀

5

요한일서의 기록자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생명의 말씀' (1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1~2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요한의 경험적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진정한 사귄과 충만한 기쁨도 없습니다(3~4절).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와 사귄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만 가능하며, 그 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6~10절).

요한의 편지가 읽혀지던 에베소 교회에서는 '영지주의' 라고 하는 이단의 사상인 잘못된 교리가 횡행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의 주장처럼, 만약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거짓이거나 조작된 교리의 내용이라면, 기독교의 믿음과 영생은 허망한 종교적 신념이거나 한낱 무의미한 철학적 사고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없는 구원은 참된 구원이 아니며 진정한 죄 사함과 온전한 구속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 1:1)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which we have heard, which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ich we have looked at and our hands have touched--this we proclaim concerning the Word of life. (1jn. 1:1)

요한일서 1장
찬송가 151장

목/창/노/트

• **피(7절)** : 성경에서 피는 생명의 그 자체를 가리킨다. 이는 피와 생명의 본질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포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6

우리의 대언자

요한일서 2장

찬송가 150장

목/상/노/트

가장 의미심장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1절).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밖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참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명령을 받게 되었고(3~6절), 어둠에 갇혀 있는 자로서가 아니라 참 빛의 비춤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권면을 받았습니다(7~8절). 우리의 신자 됨의 삶은 빛의 삶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며,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호되고 속량되며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 것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처지와 환경, 여건에 놓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언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십자가 공로는 우리의 생명과 삶 전체를 아우르는 참된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로 8:38~39).

• 대언자(1절) :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상태에 빠진 인간을 위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사어 불화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요일 2:2)
He is the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and not only for ours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1jn. 2:2)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관계 맺는 성금요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의 자녀

7

하나님의 자녀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며, 그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이며(1절), 죄에 '지속적으로' 빠져 있는 자가 아니며(9절),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나아가는 자(3절)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을 지키되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21~22절).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최고의 모습임을 말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동시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가장 복된 은혜이며 영광된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단순합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믿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사랑하게 되면 그가 좋아하고 기뻐하며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결과를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모호한 말들로 각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주를 사랑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영적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감각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의 이웃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배려로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늘 아파하고 고민하며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우리의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요일 3:23)

And this is his command: to believe in the name of his Son, Jesus Christ, and to love one another as he commanded us. (1jn. 3:23)

요한일서 3장

찬송가 162장

목/창/노/트

• **죄(4절)** :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 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자녀 됨의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자녀다운 모습의 믿음의 실천이 있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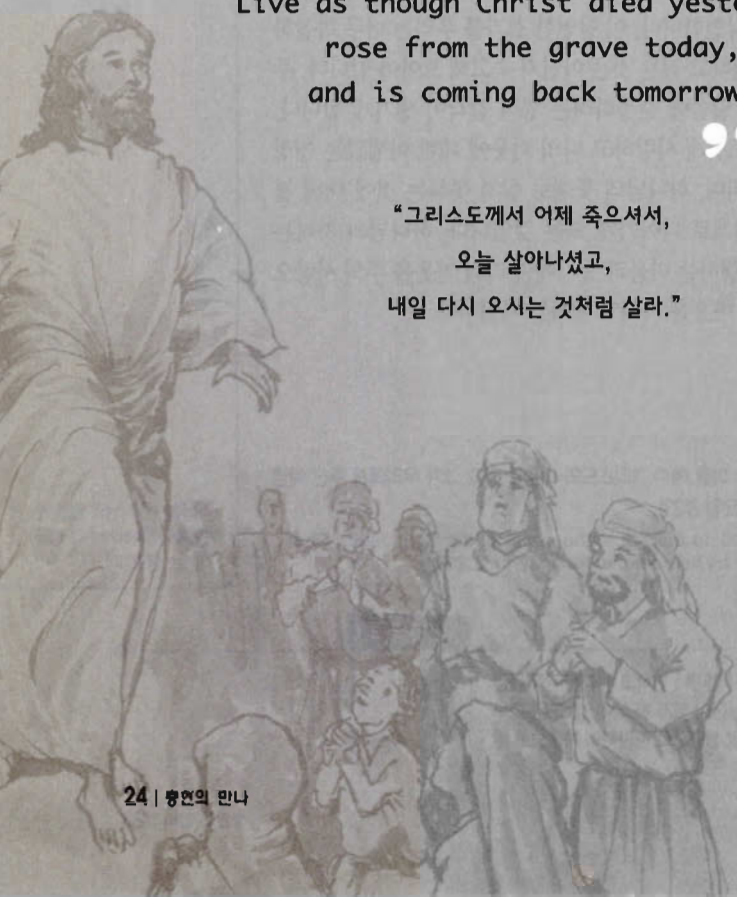
부활

“

Live as though Christ died yesterday,
rose from the grave today,
and is coming back tomorrow.

”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셔서,
오늘 살아나셨고,
내일 다시 오시는 것처럼 살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우리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분의 죽음에서부터 부활과 재림의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승리와 희망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게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롬 13:11).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자. 그 이면에 열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자. 바로 그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이다.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8 주일

9 월요일

☐ 요한일서 4장

10 화요일

☐ 요한일서 5장

11 수요일

☐ 요한이서 1장

12 목요일

☐ 요한상서 1장

13 금요일

☐ 유다서 1장

14 토요일

☐ 열왕기상 13장

2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Clearly And Surely Jesus Christ Resurrected

| 초점 |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자

| 찬송 |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 본문 | 요한복음 20:1~9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싹뚫은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싹뚫은 대로 놓여 있더라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논의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꾸며 냈거나,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음이 틀림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황과 조건 하에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관한 성경 기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나의 신앙을 쓰고,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원수들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친 것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침내 죽음을 확인하려 창으로 찌른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에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져 무덤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며 절대적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승리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골 2:14~15).

요 1:4

요 11:25~26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의 부활에 관한 예언들이 증명되었습니다.

마 16:21 _____

요 10:17~18 _____

기적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아니다

기적 행함을 보여주는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 마태복음 24:24, 출애굽기 7:22, 요한계시록 16:14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정리해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이 사탄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마 28:18).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원수가 영원토록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입증합니다.

빌 1:21,29 _____

빌 3:8,21 _____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기대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전히 돌아가신 상태로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다른 여인들과 무덤으로 왔습니다.

막 16:1~2 _____

요 20:2 _____

그녀는 굴러진 돌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았다고 믿은 것은 굴러간 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 막달라 마리아의 결정적인 두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요 20:3~5 _____

요한이 구부려 무덤을 살피는 동안 마침내 베드로가 도착하였고, 그는 요한을 지나 곧장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요 20:6~7). 베드로는 예수님의 머리를 썼던 수건과 세마포가 거기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요한은 세마포와 물건들을 쳐다보기만 했으나, 베드로에게는 그것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놀라워하며 주의 깊게 살폈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한도 분명히 그 점을 의식하게 되었고, 베드로의 결론이 맞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요 20:8~9 _____

요 20:28~29 _____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눈이 떠졌을 때,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능력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주이며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회개해야 할 죄인들이라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요 14:2~3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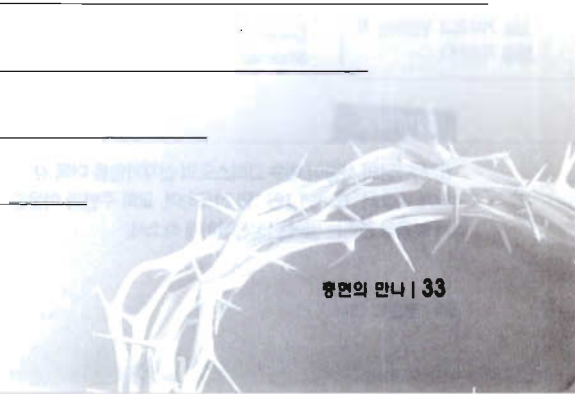
행 1:11 _____

살전 4:14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②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매 순간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 ③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 우리 구역(팀)이 되게 하소서.



[illegibl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찬송가 294장

목/상/노/트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로 요약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행동, 그것이 곧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는 이제 그 사랑에 매인 자가 되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참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누구든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며 동시에 하나님도 그의 안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또한 그의 안에 거하는 참된 신자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의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 인지가 아니라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새 계명(요 13:34~35)입니다.

• 적그리스도(3절) : 그리스도의 신격과 그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요일 4:11)

Dear friends, since God so loved us, we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 (1jn.4:11)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1절).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그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고후 5:17). 그러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1절).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형제와 이웃의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며, 믿음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입니다. 믿음과 사랑, 이 모두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의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마땅히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2~3, 10~13, 18~20절).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증언하며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for everyone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even our faith. (1jn. 5:4)

요한일서 5장

찬송가 317장

목/상/노/트

• 물과 피와 성령(6절) : ‘성령’은 제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가리키며,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성령세례로 말미암은 ‘신자의 변화된 삶’을 지적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증언(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기도제록

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 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요한이서 1장
찬송가 298장

목/상/노/트

신자가 신자 될 수 있는 것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며, 또한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행함은 두 가지 요소, 즉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4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사랑 안에서) 행하라 하심이라”(6절).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시며, 그분만이 참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는 진리와 사랑은 속 빈 강정처럼 아무런 능력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십자가를 놓친 채, 진리와 사랑을 언급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 십자가의 본질이 바뀌어진 의미이며 믿음의 본질을 위협하는 아주 무섭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도는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지적하며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의 논리로 보자면,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혹 적그리스도는 아닌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세상적 복의 개념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리스도는 그들의 신앙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복을 주시는 어떤 힘, 존재, 능력으로만 알 뿐입니다. 그러니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기에 그칩니다. 그것은 오늘날 변형된 적그리스도의 모형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 장로(1절) : 단순한 ‘연장자’, 교회의 ‘지역자’, 그리고 ‘사도의 직계자’를 의미할 때 사용된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요이 1:4)

It has given me great joy to find some of your children walking in the truth, just as the Father commanded us.(2jn. 1:4)

기도제목

①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양로원 및 함양총천농원 개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교회 속 두 패턴

12

요한은 두 부류의 신앙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이오이며, 둘째는 디오드레베입니다. 가이오에 대해서 요한은 상당한 칭찬으로 그를 격려하며 그로 인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3절). 가이오는 무엇보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습니다(3절). 형제, 곧 나그네를 신실히 섬겼고(5절),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강구했으며(7절), 나아가 복음의 사역자들을 돕고 협력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8절). 반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복음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9~10절). 그는 당시 교회의 복음에 대한 사역에 상당한 방해와 어려움을 끼친 자였고, 교만과 자기 주장이 강하여 복음 사역에 큰 해를 입힌 자였습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에는 '가이오'와 같은, '디오드레베'와 같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끊임없이 교회 내에서 함께 공존할 것입니다. 교회의 분란과 어려움, 힘든 역경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분란과 역경, 고난, 환난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가이오'입니까? 아니면 '디오드레베'입니까? 사도 요한이 본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 애쓰며 충성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기 주장을 펴며 자기를 나타내고자 애쓰는 복음의 훼방꾼, 분란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말씀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요삼 1:8)

We ought therefore to show hospitality to such men so that we may work together for the truth. (3jn. 1:8)

기도제목

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며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요한삼서 1장
찬송가 600장

목/상/노/트

• **신실함(5절)** : 어떤 일을 할 때,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게 한다는 의미를 일반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신실함'은 영적인 측면에서 믿음(faith)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여 살필 수 있다.

13

유다서 1장
찬송가 342장

목/상/노/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유다서에서 유다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의 도를 지키며 힘써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많은 요소가 신자의 삶의 주위에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몇몇의 거짓된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결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자신의 본능대로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어그러진 길이며 패망의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임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자의 삶은 영적 전투이며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많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훼방합니다. 그럴 때마다 신자는 위협을 당할 수도, 절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가 적시하고 있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3절)는 메시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망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끝인사를 하면서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24절).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강력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은 분명한 승리와 영광된 완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분발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진실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 가탄 없이(12절) : 약자의 거리낌도 없이 한 의미로, 어떤 일을 할 때 전혀 망설임 없이 진행한다라는 의미이다. 병자하게, 막무가내로, 버릇없이, 교만하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랴(유 1:21)
Keep yourselves in God's love as you wait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to bring you to eternal life. (Jude, 1:21)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오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의 사람

14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를 잡아 그 입을 봉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손이 마르자 손이 성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1~10절).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여로보암과 베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변경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베엘의 선지자는 거짓말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집으로 초청합니다(11~18절).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가 죽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의 죽음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습니다(19~34절).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가 경고한 것은 장차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할 것인데 그 왕이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 제사장을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만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여로보암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에게 나타나 경고를 하는 선지자를 보고 있노라면 성경에 등장하는 참된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15:19)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엘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왕상 13:1)

By the word of the LORD a man of God came from Judah to Bethel, as Jeroboam was standing by the altar to make an offering. (1kgs. 13:1)

열왕기상 13장
찬송가 312장

목/창/노/트

•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32절) : 사마리아는 북쪽 왕국의 수도로서 북쪽 열 지파의 모든 영토를 지칭할 때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는 아직 수도가 아니었다. 본문은 앞으로 열 여덟 일들에 대한 예언이다.

기도제목

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예수님이
12

부활하셨어요
12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 재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땅에 내려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하면

그 사랑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네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는 무서워서 '결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도망가지 않고

용감하게 씩씩하게 두려움을 이겨낼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죄만 지었는데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라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공부도 열공할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안재우(중등부)

본 주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수천 명을 먹인 일에 대한
세 사람의 시각

그의 옷 기에
손을 대니

산을 향하여
눈을 돌라

누가복음 19:28~40

요한복음 20:1~9

요한복음 6:4~14

누가복음 8:43~48

시편 121:1~8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5 주일

16 월요일

☐ 열왕기상 14장

17 화요일

☐ 열왕기상 15장

18 수요일

☐ 열왕기상 16장

19 목요일

☐ 열왕기상 17장

20 금요일

☐ 열왕기상 18장

21 토요일

☐ 열왕기상 19장

3

수천 명을 먹인 일에 대한 세 사람의 시각

Three People's Perspective On Feeding Thousands

| 초점 |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믿음으로 드리자

| 찬송 |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 본문 | 요한복음 6:4~14

^{4a}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4b}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4c}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⁵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⁶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⁷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⁸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⁹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¹⁰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¹¹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¹²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늘 성경 본문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 14:13~21 ; 막 6:30~44 ; 눅 9:10~17). 이 말씀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5,000명의 남자만을 기록하였으나 여자와 아이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대략 1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적인 표적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생명의 떡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며,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요 6:35 _____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세 사람(빌립, 안드레, 어린 아이)이 수천 명을 먹이는 문제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빌립을 시험하시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자신에게 오고 있는 많은 무리를 보시며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요 6:5).

요 6:6~7

※ 예수님의 질문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역 처음부터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셨고(요 1:43), 빌립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랍고 경이로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시험하셨을 때 자신의 계산에 의존했습니다.

※ 빌립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무엇 인지를 알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안드레의 질문

안드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연히 듣고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요 6:9

안드레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묘사하여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 던진 그의 질문은 예수님이 일하실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답을 아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행한 기적은 무엇입니까(왕하 4:42~44)?

※ 엘리야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왕상 18:41~46).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차고 넘칩니다. 주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 시편 23을 암송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드리다

어린 아이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요 6:10~11

어린 아이의 작은 드림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희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마도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는 배고픔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사모함이 더 컸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얼마 안 되는 음식을 축사하신 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이의 희생에 의한 이 음식을 먹은 모든 사람은 은총을 받았습니다(요 6:12~14). 심지어 그 어린 아이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 나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렸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은 적은 예물일지라도 항상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자 하십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과부의 적은 헌금이 예수님께는 부자의 예물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눅 21:3~4

여러분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를 믿음으로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행복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대답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주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애 4:17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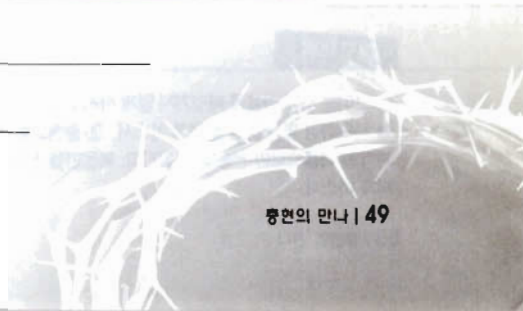
히 12:2 _____

벧후 3:13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예수님을 믿으며,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회개하며,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소서.
- ③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열왕기상 14장

찬송가 449장

묵/상/노/트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들이 병들자 아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아내를 실로에 있는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아내의 정체를 숨기고 마치 평민처럼 분장하고 선물을 하면서 아들을 위해 간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1~5절).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선대하셨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쓸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7~10절). 그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죄를 범한 결과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받고,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 방패를 빼앗겼습니다. 이는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25~28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휼과 자비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알게 하셔서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말씀을 우리 안에 굳게 세우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돈이 나를 굳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굳게 세운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으면서 자신의 길을 살피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인지 살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생이 있는 길로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참되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 **아세라(15절)** : 고대 두로의 여신. 엘신의 아내였고 바알을 위시한 70명의 신들의 어머니였다. 구약에서 아세라 숭배는 바알 숭배와 같이 행해졌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왕상 14:16)

And he will give Israel up because of the sins Jeroboam has committed and has caused Israel to commit. (1Kgs. 14:16)

기도제목

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총을 늘 사모하여 영생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참회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인간의 한계

17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시대에 남 유다를 다스렸던 왕 아비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후사가 되게 하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습니다(4~5절). 악한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아사가 태어나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아버지 시대의 악한 풍습들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쫓아내었고, 그 엄격함은 자신의 모친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8~13절). 그러나 아사도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14~15절). 지속되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받은 아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는 부친 아비얌의 전쟁과 비교하여 볼 때 그가 평생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16~24절).

유다의 아사 왕은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그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내어 쫓아 버리고, 열조가 만든 모든 우상들을 없애 버립니다. 심지어는 아세라 우상을 만든 태후의 위를 폐하여 버릴 정도로 철저한 개혁을 행한 왕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사 왕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대하 16:7).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믿음을 지금의 믿음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근거에 자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는 말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고 막에 밭에 병이 들었더라(왕상 15:23)

As for all the other events of Asa's reign, all his achievements, all he did and the cities he built,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Judah? In his old age, however, his feet became diseased. (1kgs. 15:23)

열왕기상 15장

찬송가 430장

목/상/노/트

·다윗의 마음(3절) : 다윗도 중한 죄를 범했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였고, 그의 마음은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 예. 가. 환. 원주민의, 우성을. 결코. 섬기지 아니하였다.

기도제목

① 과거의 신앙을 자랑치 말고,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노트

여로보암의 길

열왕기상 16장

찬송가 379장

목/상/노/트

바아사가 군사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일이 성취되어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쓸어버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1~7절). 하나님은 바아사의 집에 선포되었던 예언대로 그 집을 멸하셨습니다(8~14절). 바아사의 뒤를 이어 왕이 순식간에 바뀌고 3번의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아합은 앞선 왕들보다 더 큰 악을 행했습니다(30절).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바알의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15~34절).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고, 산당을 만들어 제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을 섬긴 것이 여로보암의 악이라고 여겨지겠지만 더욱 근본적인 악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의 집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집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집은 단순히 다윗이라는 사람의 가문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의 언약, 곧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러한 다윗의 집에서 백성을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히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 옛바알(31절) : 옛바알은 본래 바알 신의 제사장이었는데 시돈 왕 펠레스를 살해한 후 왕이 되어 베니게를 32년간 통치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왕상 16:2)
I lifted you up from the dust and made you leader of my people Israel, but you walked in the ways of Jeroboam and caused my people Israel to sin and to provoke me to anger by their sins.(1kgs. 16:2)

기도제목

①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언약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의 다스리심

19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아합에게 선포합니다(1절).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그릿 시냇가에 숨을 곳을 명령하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자 그릿 시냇가는 곧 말라 버렸고,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2~9절).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로 작정한 사르밧 과부를 살리십니다(10~16절). 그러나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여인은 엘리아를 원망하고, 엘리아는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17~23절). 여인은 비로소 “여호와와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24절)라고 고백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풍족하게 비가 내리게도 하고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해 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아는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라는 맹세를 여호와와 이름으로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참된 신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세상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력과 능력으로 유지되는 세상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경험이 부인되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아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왕상 17:1)

Now Elijah the Tishbite, from Tishbe in Gilead, said to Ahab, “As the LORD, the God of Israel, lives, whom I serve, there will be neither dew nor rain in the next few years except at my word.”(1kgs. 17:1)

열왕기상 17장
찬송가 455장

목/상/노/트

•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4절) : 까마귀는 먹이를 가장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새이다. 그런데 그 본성을 억제하고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준 것은 놀라운 기적이다.

기도제목

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나의 행위가 굴복 당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성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나

열왕기상 18장
찬송가 439장

목/상/노/트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3년이 지나자 다시 엘리야를 불러 비를 내릴 것이니 아합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1절). 하나님을 경외하던 오바다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선지자 일백 명을 숨겨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엘리야를 만나서 아합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3~15절).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의 선지자 사백오십 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사백 명을 갈멜 산으로 모이게 합니다(16~19절).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아 놓고 하나님과 바알 중 누가 참 신인지를 판가름하자고 제안합니다(22~24절).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이 불을 내려 줄 것을 바라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25~29절).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갈멜 산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 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큰 비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30~46절).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났을 때 한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나”(17절)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로 바라봅니다. 아합의 말에 대해 엘리야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합과 아합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보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지 않는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 사람과 환경에 모든 원인을 두고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만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나(왕상 18:17)
When he saw Elijah, he said to him, "Is that you, you troubler of Israel?"(1kgs. 18:17)

• **바알들(18절)** : 바알이 복수 형으로 쓰인 이유는 각 지방마다 각각 자기들의 바알(예: 바알세불, 바알브올, 바알브릿 등)을 섬겼기 때문이다.

기도제목

①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사귀어 있는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21

이세벨은 아합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커녕 오히려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여 바알 선지자들의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1~8절). 엘리야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합 정권에 대항할 선지자들이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 혼자만 남게 되었으며, 자기 목숨마저도 위태롭게 되었다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는 탄원입니다(10~14절). 이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명을 남기시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될 엘리사를 준비 시키십니다(15~21절).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는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쳤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10절).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불이 내려와 단을 태웠을 때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왕상 18:39)고 고백하며, 엘리야가 말한 대로 바알 선지자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은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그와 함께 하다 자신들에게도 그 위험에 닥쳐올까봐 그를 배척해 버린 것입니다. 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며 음해하는 세력들 앞에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왕상 19:10)

He replied, "I have been very zealous for the LORD God Almighty. The Israelites have rejected your covenant, broken down your altars, and put your prophets to death with the sword. I am the only one left, and now they are trying to kill me too." (1kgs. 19:10)

• **로뎀 나무(4절)** : 시막 치방에서 자라는 관목의 일종으로, 잔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무청하다. 줄기와 가지는 좋은 숲의 재료로, 뿌리는 식용으로 사용된다. 욥기 30:4에는 ‘대싸리’라고 번역되었다.

기도제목

① 내가 원하는 기대를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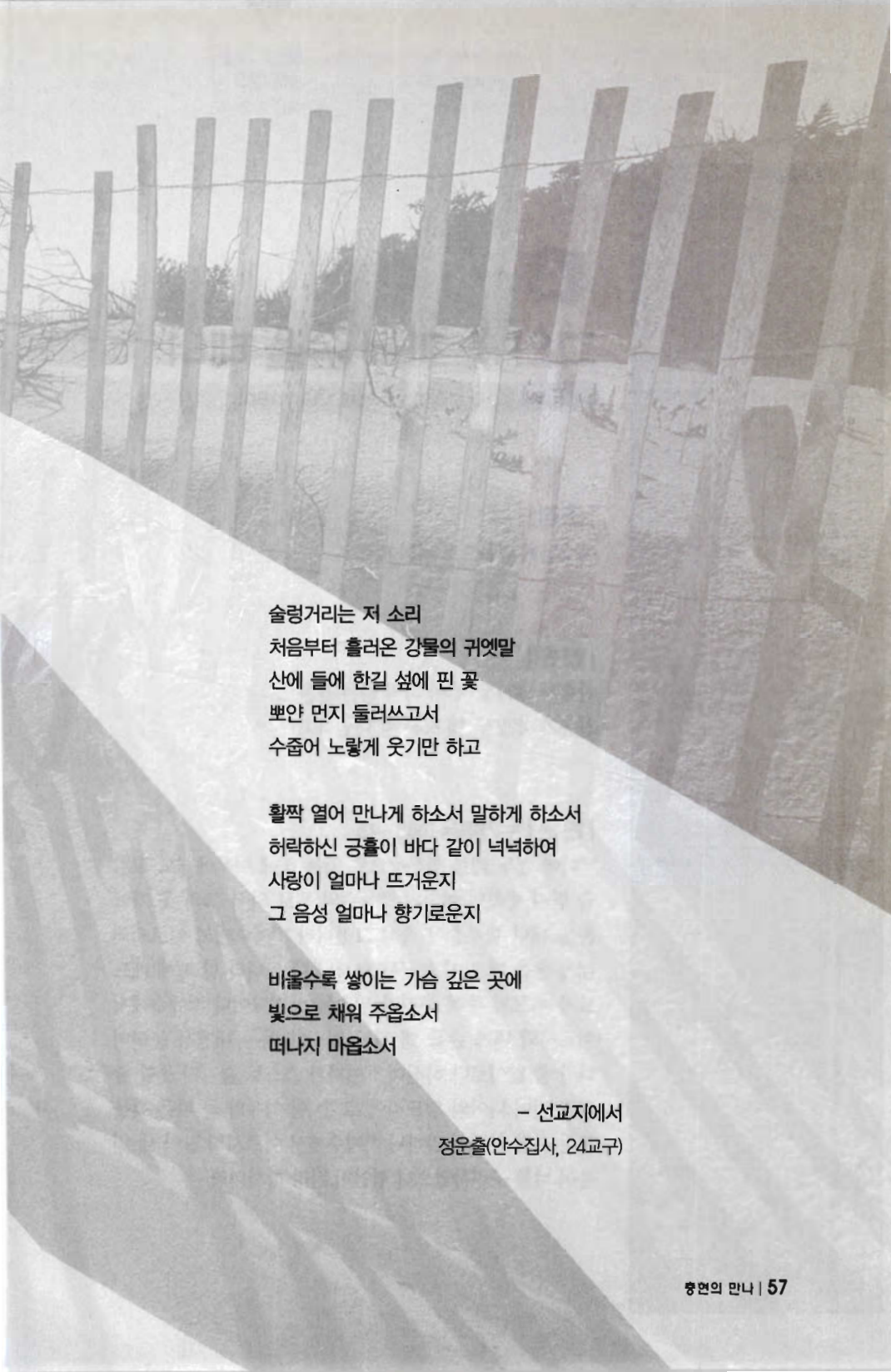


빛으로 채워 주옵소서

메마른 땅 익숙한 어둠에서
참 빛을 모르고 살아 온 나무들
바람 부는 날에도 한자리에 서서 잠자고

오래 견뎌온 목마름 갈급하여
무릎 다 젖도록 꿇어 간구할 때
한뼘쯤 남은 새벽
목청껏 토하는 달 울음 소리 번져
바위산을 단숨에 치닫는 큰 무리 안개

다 이루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여
배신하고 무너져
살고자 죽은 자들 죽고자 산 자들
깨어 듣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술렁거리는 저 소리
처음부터 흘러온 강물의 귀엣말
산에 들에 한길 숲에 핀 꽃
뽕얀 먼지 둘러쓰고서
수줍어 노랗게 웃기만 하고

활짝 열어 만나게 하소서 말하게 하소서
허락하신 긍휼이 바다 같이 넉넉하여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음성 얼마나 향기로운지

비울수록 쌓이는 가슴 깊은 곳에
빛으로 채워 주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 선교지에서
정운출(안수집사, 24교구)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2 주일

23 월요일

☐ 열왕기상 20장

24 화요일

☐ 열왕기상 21장

25 수요일

☐ 열왕기상 22장

26 목요일

☐ 열왕기하 1장

27 금요일

☐ 열왕기하 2장

28 토요일

☐ 열왕기하 3장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Touch The Hem Of His Garment

| 초점 |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 찬송 |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찬송가 472장 네 병든 손 내밀라고

| 본문 | 누가복음 8:43~48

⁽⁴³⁾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⁴⁴⁾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⁴⁵⁾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⁴⁶⁾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 하신대 ⁽⁴⁷⁾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⁴⁸⁾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 가에 손을 댄 것에 관한 많은 노래와 시, 설교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주 많은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겉옷 가를 만진, 중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인에 대해서 정리해 보십시오(막 5:25~26).

레 15:25

우리의 삶에는 오직 주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누구에게든지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 여인을 살피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여자는 절망했다

여자의 절망이 그녀를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눅 8:43

이 불쌍한 여자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갈 수도 없었고, 돈도 없었으며, 오랜 병 때문에 삶을 지탱할 힘도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실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 이 여인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모습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기 전까지는 부정하게 태어나 계속 부정하게 살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은 절실합니다. 절망으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셨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절망적인 죄 된 본성을 바꾸실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요일 2:25

여자는 결정했다

여자는 결단함으로 예수님의 옷 가에 손을 댈 수 있었습니다.

눅 8:44 _____

이 여자가 예수님의 겹옷 가에 손을 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 이 여인을 막아섰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설교 지문 참조)

그녀는 결단을 통해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예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결단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시 17:3 _____

여자는 구원받았다

여자의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눅 8:45~46 _____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대자마자,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눅 8:48

그녀는 자신이 가능하리라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행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자의 선언

여자의 선언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눅 8:47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명은 자신이 왜, 어떻게 예수님을 만졌고 이후에 어떻게 느꼈는지를 단순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녀의 단순한 증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 나의 삶에 이 여인과 같은 증언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이 여자가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녀의 삶은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소망으로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너무나 많은 측면에서 부정한 자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씻어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께 손을 대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댈 때에 예수님은 그 손땀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히 13:13 _____

시 43:4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믿음으로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 ②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아가 십자가를 전하게 하소서.
- ③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구역(팀)이 되게 하소서.



열왕기상 20장

찬송가 171장

목/상/노/트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람 왕 벤하닷은 주변 나라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꾀박했습니다. 아합은 조공을 바칠 것을 약속하지만 벤하닷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많은 요구를 합니다. 이 때문에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1~12절).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13~30절). 이는 이스라엘과 아람 모두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벤하닷을 살려 줍니다. 그 결과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31~4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13절)는 말씀은 아합은 악한 왕인데 왜 하나님이 아합을 도우시는가? 라는 의문을 낳을 수 있습니다. 분명 아합은 멸망을 받아야 할 악한 왕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신 것은 아합을 돕기 위함이기보다는 1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아합의 완악함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완악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왕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 선지자의 무리(35절) : 직역하면 ‘선지자의 아들들’이다. 이는 선지 학교가 사무엘 시대부터 있었으며, 아합 시대에는 길갈, 벳엘, 여리고 등에 있었음을 말해 준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왕상 20:13)

Meanwhile a prophet came to Ahab king of Israel and announced, "This is what the LORD says: 'Do you see this vast army? I will give it into your hand today, and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1kgs. 20:13)

기도제목

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아합은 자신의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여호와께서 주신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고 하므로 아합은 근심합니다(1~4절). 이세벨은 아합의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힘과 음모로 그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제거하면 그만이었습니니다. 이세벨은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은 이세벨의 악한 음모를 따라 나봇을 죽였습니다(5~16절).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의 악을 더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아합도 나봇처럼 죽게 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또한 이세벨에 대한 심판도 빼놓지 않으십니다. 그녀는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개의 먹이가 되는 것은 장사지낼 가치도 없는 비극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 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에 아합은 놀랍게도 겸비한 태도로 회개를 합니다(17~29절).

나봇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합당한 값을 주겠다고 한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업을 남에게 파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잠깐 하면 지금의 포도원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봇은 하나님의 규례를 내세워서 아합의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왕의 권력보다 일순간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나봇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봇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힘은 왕의 권력도 돈의 힘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왕상 21:3)

But Naboth replied, "The LORD forbid that I should give your the inheritance of my fathers." (1Kgs. 21:3)

• **이스라엘(1절)** :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뜻이다. 원래는 갈릴 산에서 팔레스타인을 가르치르는 평원을 가리킨다. 이 평원의 중앙에 이스라엘이란 성읍이 있었다. 본문은 그 성읍을 가리킨다.

기도제목

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여호와와의 말씀만 붙드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 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아람과의 전쟁이 3년 동안 그쳤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서로 동맹을 맺고 아람을 치기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아합은 사백 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모았습니다. 전쟁의 승패에 관해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흉한 것을 예언하는 미가야는 부르지 않았습니다(1~12절). 사신은 미가야를 찾아가서 시드기야를 비롯한 사백 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모두 좋은 말을 하였으니 미가야도 같은 말을 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단호히 거절합니다(13~28절).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만 믿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은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29~40절).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아버지와의 같이 바알을 섬기며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41~53절).

신자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많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힘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자신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말썽을 한다면 결국 아합처럼 나의 욕망을 도와주는 말이나, 소위 힘이 나게 한다는 긍정적인 말에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세상에 붙들어 놓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은 결국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세상에 집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왕상 22:18)

The king of Israel said to Jehoshaphat, "Didn't I tell you that he never prophesies anything good about me, but only bad?" (1kgs. 22:18)

• 교생의 떡과 교생의 물(27절) : 감옥 생활을 의미한다. 많은 학자들이 미가야를 2035~43장에 등장하는 선지자와 동일 인물로 간주한다. 아합은 자기에게 불리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악행을 저질렀다.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하소서. ② 흥한 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양로원 및 함양충현동원 개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가느냐

26

아합이 죽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아하시야는 창문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세불을 의지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아하시야에게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전합니다. 하지만 아하시야는 회개는커녕 오히려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보내어 엘리야를 체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잡으러 온 아하시야의 신하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죽이심으로 엘리야를 보호해 주십니다(1~12절). 세 번째 오십부장 일행은 앞선 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해 살아남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하시야에게 가서 여호와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하시야는 그 말씀대로 죽고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13~18절).

신자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는 것으로 생각과 방향이 달라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과 소망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북하고 부담이 됩니다. 때문에 아하시야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불을 찾아가서 자신의 일을 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거북하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며 그것이 진리라고 변명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여기며 찾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왕하 1:3)

But the angel of the LORD said to Elijah the Tishbite, "Go up and meet the messengers of the king of Samaria and ask them, 'Is it because there is no God in Israel that you are going off to consult Baal-Zebub, the god of Ekron?'" (2Kgs. 1:3)

열왕기하 1장

찬송가 499장

목/창/노/트

• 바알세불(2절) : '파리의 주'란 뜻이다. 파리 형상의 우상이었던 것 같다. 이 우상이 질병을 보내기도 하고 낫게 하기도 한다고 생각하였다.

기도제목

① 내 마음에 가법고 들기에 좋은 말을 원하는 사람이 아닌, 진리를 듣기 원하는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중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기도노트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벰엘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여행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아 있으라고 했는데도 엘리야와 떨어지기를 거부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후계자가 되기를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9절)라고 말하며 은혜를 구합니다(1~10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겂옷을 주워 요단 강을 찾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11~14절).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받아 사역을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던져 물의 근원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음을 증거합니다(15~22절). 또한 벰엘로 올라가는 길에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작은 아이들을 저주하여 죽게 합니다(23~25절).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자 하는 신자라면 분명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처럼 어떤 꾀박과 고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신자라면 분명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상관이 없고, 십자가가 서 있는 곳과는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능력은 필요치 않고 세상을 위한 능력만 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대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래왕하 2:9

When they had crossed, Elijah said to Elisha, "Tell me, what can I do for you before I am taken from you?"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Elisha replied. (2kgs. 2:9)

• 불수레와 불말들(11절) : 모세의 경우와 같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여호와와의 만군이 엘리야의 사역을 뒤따르며 도와주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듯이 이제 엘리사도 엘리야가 떠나는 때에 여호와와의 만군을 보게 된다.

기도제목

- ① 복음과 상관없이 삶을 사는 것을 용서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게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과의 관계

28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압 왕은 아합이 죽자 이스라엘을 배반하였고,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더불어 연합군을 형성하여 모압과 전쟁을 벌입니다(4~12절). 여호람은 엘리사를 불러 전쟁에 대한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모압 왕은 전세가 불리하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 후계자가 될 말아들을 자기들의 신에게 번제로 드리기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13~27절).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도리와 의리, 인간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인간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 관계를 앞세우게 됨으로써 여호람의 악을 보지 못하고 단지 도와주는 것이 도리라는 인간 관계만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대하 19:1~2).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핵심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에 기초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왕하 3:7)

He also sent this message to Jehoshaphat king of Judah: "The king of Moab has rebelled against me. Will you go with me to fight against Moab?" "I will go with you," he replied. "I am as you are, my people as your people, my horses as your horses." (2Kgs. 3:7)

열왕기하 3장
찬송가 286장

목/상/노/트

• **물매관(25절)** : 투석병을 가리키는 말로, 고대의 전쟁에서 오늘날의 포병의 역할을 했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구주로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장애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장애인들은 복음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신체의 장애가 복음을 막았고, 많은 교회는 이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들에게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변의 장애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불편해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장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장애를 넘어 영적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 바랍니다.

Tip. 장애인 주일이란?

유엔의 세계 장애인의 해(1981년)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을 바르게 이해하며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고취할 목적으로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였고, 1989년에는 정부의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한국의 교회가 '장애인 주일'을 선포한 것은 1989년부터이고, 4월 20일을 전후하여 장애인 주일을 제정하여 지키고 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4월 마지막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제91회 총회 결정)하였다.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9 주일

30 월요일

☐ 열왕기하 4장

1 화요일

☐ 열왕기하 5장

2 수요일

☐ 열왕기하 6장

3 목요일

☐ 열왕기하 7장

4 금요일

☐ 열왕기하 8장

5 토요일

☐ 열왕기하 9장

5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Life Up Your Eyes To The Mountains

| 초점 |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자

| 찬송 |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본문 | 시편 121:1~8

①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②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③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줄지 아니하시리로다 ④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⑤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⑥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⑦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⑧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아름다운 시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시편은 확실히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걸으며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아주 많기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 현재 도움이 필요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요 15:18~19

요 16:33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정말로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의 건강 또는 자신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든지, 또 그 문제가 계속해서 생길지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시내 산을 바라보라

우리는 눈을 들어 시내 산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 121:1~2

모세가 시내 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시내 산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미래를 열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했으며, 마른 땅의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시내 산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 3:4~5,10

출 20:20~21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신성을 선언했고, 그분의 변하지 않는 원칙들을 정했습니다. 거룩하시고 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듯한 상황일 때에도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자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갈보리 산을 바라보라

우리는 눈을 들어 갈보리 산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 121:3~4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요 19:17~18).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을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드렸습니다.

요 19:30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쏟아져 나왔으며, 죄 사함의 은총은 무한히 흘러 넘쳤습니다. 이 구원과 소망의 산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천국의 확신을 얻길 소망하고 있습니까? 치료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습니다.

롬 3:23~26

감람 산을 바라보라

우리는 눈을 들어 감람 산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 121:5~8

감람 산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예수님은 삼 일 후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 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으며, 천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주었습니다.

행 1:8

행 1:10~11

천사가 전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요 14:2~3). 예수님은 재림 때까지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마 28:18~20). 하나님의 왕국이 준비되면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고통이 닥치더라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속자께서 살아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내 산, 갈보리 산, 감람 산을 향해 여러분의 눈을 드셨습니까?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초대가 아닙니까! 의로우신 구세주를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눈을 드십시오. 십자가의 구주를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눈을 드십시오. 지금, 다시 오실 구세주를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눈을 드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도우시는 은혜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영적 산들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향해 눈을 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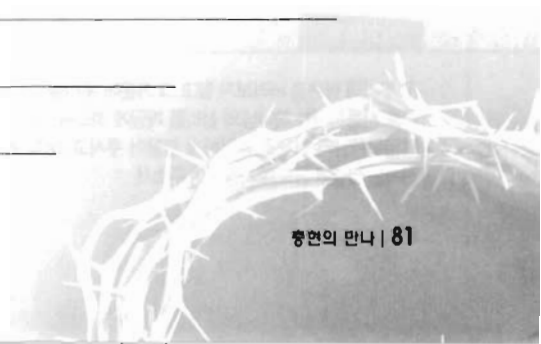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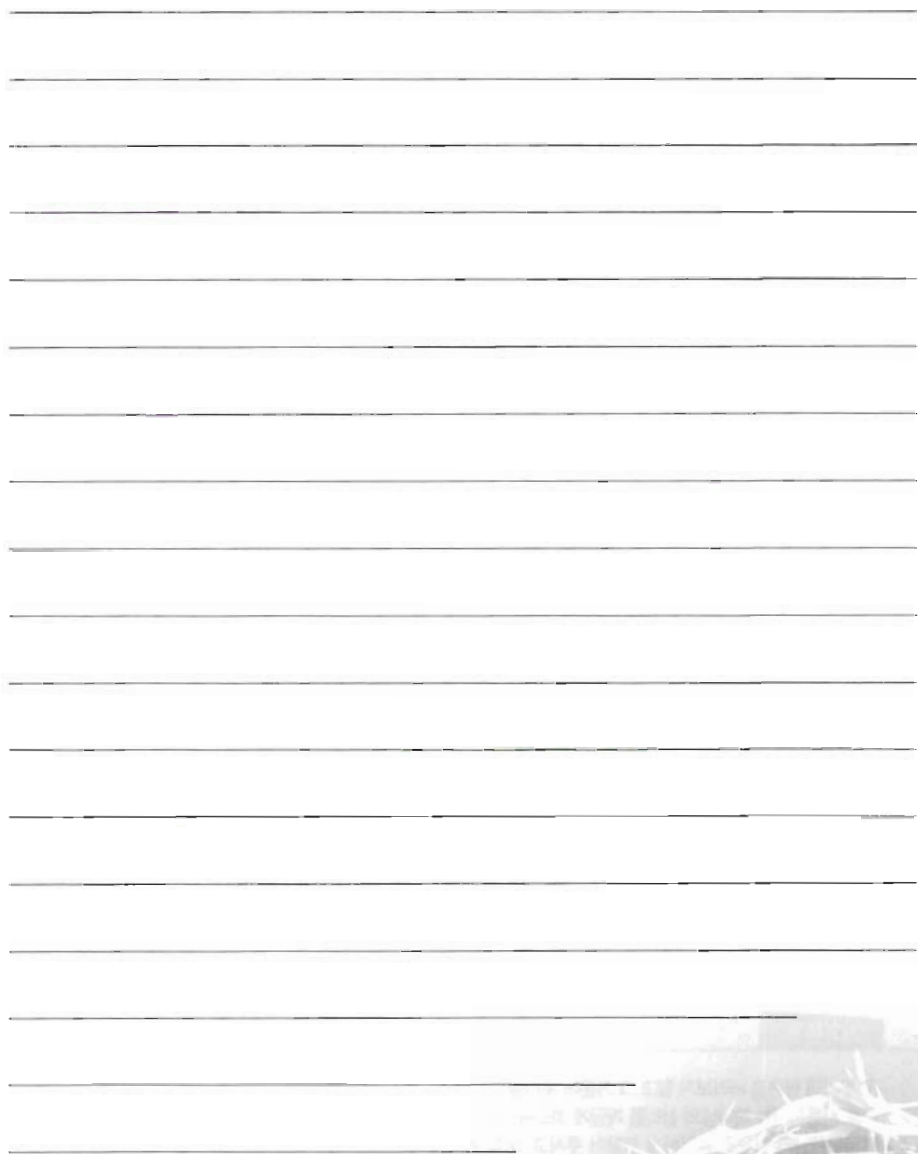
미 7:7 _____

벧후 3:12~13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믿음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부활, 재림을 바라보게 하소서.
- ②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아가 십자가를 전하게 하소서.
- ③ 믿음의 소망으로 풍성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기름 한 그릇 외에도

열왕기하 4장
찬송가 505장

목/상/노/트

•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
(30절) : 영혼은 (하) '루아
흐'로서 '생명'을 뜻한다.
곧 엘리사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는 뜻이다. 성경에
서 사람의 생명을 두고 맹
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과부는 아들이 종으로 팔릴 지경에 이르자 엘리사에게 나와서 도움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기름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빚을 갚을 수 있게 했습니다(1~7절).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안식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8~16절).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 병들어 죽는 시련을 당한 수넴 여인은 갈멜 산으로 엘리사를 찾아가 아들의 죽음을 알리고,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로 죽은 아들은 다시 살아납니다(17~37절). 길갈에 이르렀을 때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엘리사는 독이 있는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었고, 보리떡 이십 개와 채소 한 자루로 백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38~44절).

과부에게는 기름 한 병이 가진 것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는 빚을 갚을 수도 없고 앞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기름 한 그릇 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처한 형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나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이끌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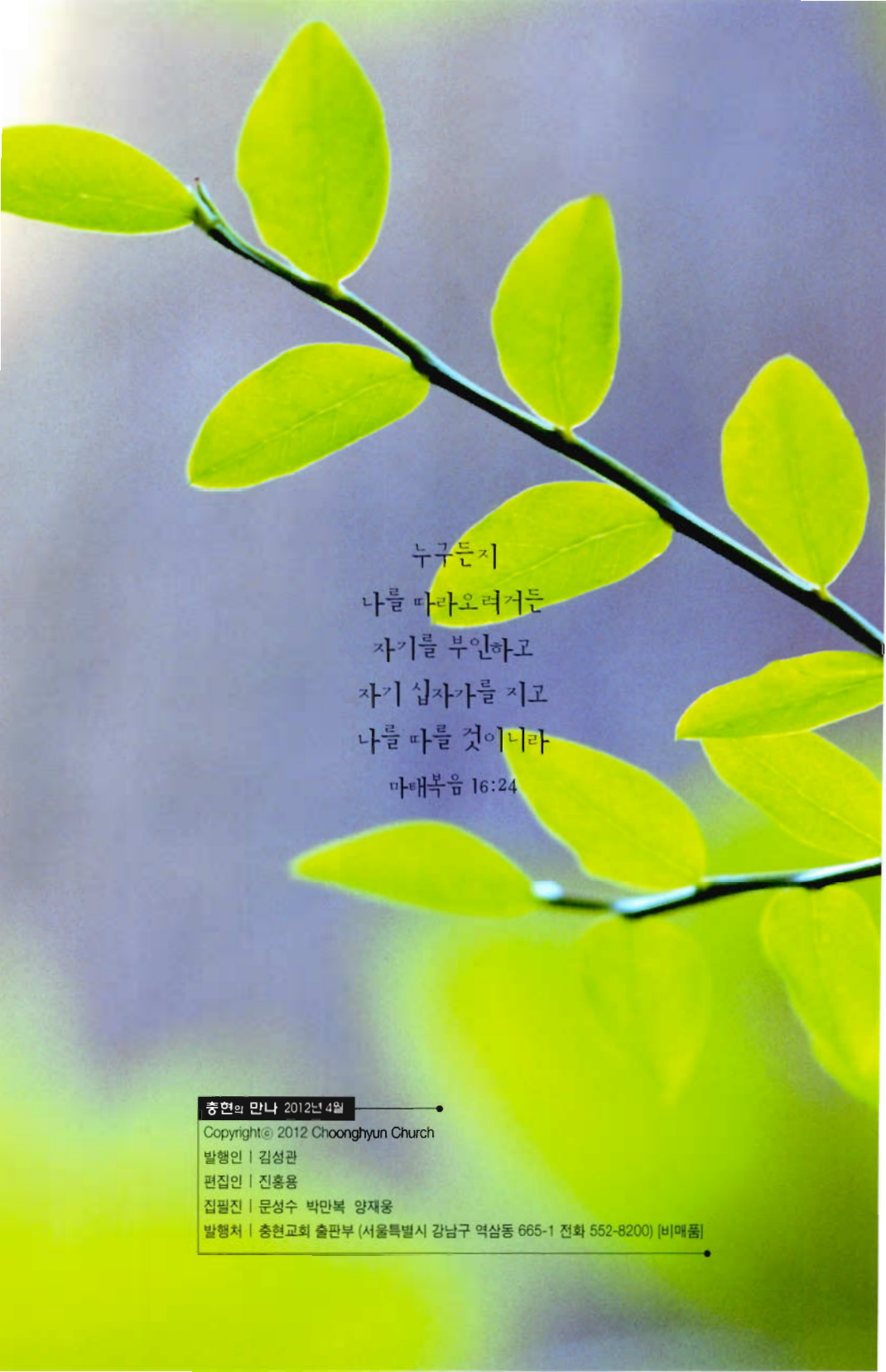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왕하 4:2)
Elisha replied to her, "How can I help you? Tell me, what do you have in your house?" "Your servant has nothing there at all," she said, "except a little oil." (2Kgs. 4:2)

기도제목

①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노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2년 4월

Copyright© 2012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문성수 박만복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